

음식과 수행



'알고 먹자'

인위적인 먹거리생산의 피해

조희성님께서 대동군 치안대장으로 오다가 하루아침에 포로로 전락했을 때, 갖은 고생을 다하셨는데 특히, 먹기만 하면 그대로 설사로 나오는 이질에 걸려 얼굴과 몸 전체가 빼만 앙상하게 남아있었다고 한다. 그 상태에서 중공군의 인해전술로 인해 국군이 후퇴를 하게 되자 인천으로 옮겨지던 중 영등포 부근의 과일가게를 지날 때 어떤 포로가 일부러 과일을 발로 차서 땅바닥에 떨어뜨렸고, 조희성님께서는 자신의 앞으로 굴러오는 사과 한 개를 집어서 먹었는데 정신이 퍼뜩 나면서 사과가 그렇게 몸에 좋다는 것을 알게 되셨다고 강론하신 바 있다.

매스컴의 보도에 따르면 요즘음의 과일은 당도도 높아지고 맛도 있으나 예전에 비해 영양가는 형편없다고 한다

며칠 전 TV에서 요즘 재배되고 있는 과일의 영양가와 수십 년 전 재배되었던 과일의 영양가를 비교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놀라게도 요즘의 과일은 당도는 높아지고 또 맛도 더 좋아졌는데도 영양가는 형편없다는 것이다. 심지어 사과와 배의 경우, 현재 재배되고 있는 사과 10개와 옛날에 재배된 사과 1개의 영양가가 같다는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과는 사람과 사는 사람 모두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즉, 소비자가 좋아하는 높은 당도를 만들기 위해 생산자는 사과 재배에 있어서 인위적인 방법을 가하게 되고 그것은 결국 맛있는 사과를 필지언정 몸에 좋은 사과는 되지 못한다는 말이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사과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 현대인들이 먹고 있는 모든 먹거리에 적용되어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또 다른 예로 닭의 경우를 보자, 한 매체에서 어떤 교수는 자신은 삼계탕을 먹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 이유는 옛날에 방목하면서 키웠던 토종 닭과 현재 닭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며 사료를 먹고 자란 양계장의 닭을 비교해보면 확연히 알 수 있다. 닭은 몸집이 작고 약해 보여도 수명이 30년은 거뜰히 된다고 한다. 그러나 양

계장의 입맛은 천수를 누리지 못한다. 왜냐하면 낱개조차 썰 수 없는 좁은 철망에 하루 종일 갇혀 살고 또 1년 365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알을 낳기 때문이다. 또한 더 이상 알을 낳을 수 없게 되면 사람들의 식탁에 오르며 생을 마감한다.

가축도 예전에 비해 스트레스로 제 수명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 우리의 먹거리로서 문제점이 많다

돼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원래 돼지는 아주 영리하고 깔끔한 짐승이며 수명은 15년이나 된다고 한다. 그러나 돼지 사육장의 아귀돼지는 1년도 채 못 산다고 한다. 스트레스로 쇠창살을 씹거나 옆 돼지의 피리를 물어뜯기 때문에 이빨과 피리를 잘라버린다.

스트레스를 받은 닭이나 돼지를 먹게 되면 그만큼 인간에게는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 물론 이 좋지 않은 영향을 무시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하다. 왜냐하면 스트레스를 받은 동물의 고기가 우리 인간의 몸속에 들어오면 비만이나 고혈압, 당뇨 등의 만성질환의 원인이 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승리재단 구세주께서 설하신 영생화의 견지에서 보더라도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며 피를 썩게 만드는 주범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고기를 아예 먹지 말라'는 것이냐' 라고 반문하는 사람이 많은 것인데 그런 얘기는 아니다. 동물의 복지도 생각하고 인간의 건강도 환경도 생각하는 '동물복지축산'을 하자는 것이다.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에 이 개념이 도입돼 있지만 정부 정책은 여전히 그렇지 못하다. 물론 동물복지 축산을 할 경우에는 지금처럼 고기를 많이 먹지 못할 수도 있고 가격이 오를 수 있지만 과도한 육류 섭취가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위협하는 것을 생각하면 그 정도는 감내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진정한 먹거리를 먹을 수 있는 건강한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면 위에서 언급한 문제들은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승우 기자

전문 수기



두 번째 회

삶의 모순과 의문점들 그리고 진리의 성령, 이슬성신

폴리기 시작하는 인생들의 모순과 의문점들

첫회에서 이야기한 은혜 체험 후 여태 어느 종교에서 들어볼 수 없었던 테마인 불로불사 영생의 진리를 본격적으로 알아보려고 했다. 처음에는 격암유록과 불경 등 경전이나 성경의 이리저러한 논리에 그리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점차 뇌 청소가 이루어지면서 나중에는 성경과 불경 속에 참진리와 껍데기 말씀들이 분별이 되며 깊이 파고드는 공부를 하게 되었다. 나의 주 관심사는 당연지사 사람 몸이 어떻게 늙지 않고 죽지 않고 영생할 수가 있는 것인지 과학적으로 이해하는 데에 집중 되었다. 여호와 증인이라는 데서 비슷한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도 죽은 후 예수 재강림과 부활과 영생이라는 것. 그리고 아름다운 지상에서의 영원한 삶... 그 이상의 별반 시원한 소식을 얻지 못하지 않나. 통일교의 '원리강론' 교리에는 죽은 후 영계에서의 영생만을 이야기하지, 늙지 않고 죽지 않는다는 교리는 없다. 그러므로 그들 종교는 죽어서 영계로 가기 전에 선업을 많이 쌓으라는 것만 가르치는 것이다. 흔히들 죽은 후 부활과 천국을 기약하는 기성종교적인 교리체계에서 더 나아가는 것이 별로 없는 허황된 것이다. 불로불사 구원의 길이라는 종교적이고 과학적인 관심사는 연구와 공부가 취미였던 나에게 지적 탐구열을 자극하고 엄청난 모티브를 주는 이야기였다.

불로초는 약초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생의 신, 이슬성신

불로불사를 가능케 한다는 불로초. 동양적 예언의 술어로 말하는 불로초가 어떤 약초가 아니라 '감로해인'이라는 신비한 물질이라는 것. 그것이 메시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며 성경상의 용어로 '이슬성신' 또는 '살바관선'이라는 하나님의 빛이라는 것이다. 그 신비한 빛의 사진과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당시 주 관심사가 되었다. 또 그 '감로 이슬성신'이라는 하나님의 빛이 과학으로 표현하자면 '중성



본부재단에서 예배를 때 내린 이슬성신

자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구세주의 말씀에 더욱 새로운 것을 깊이 알고 싶어지는 지적인 탐구심으로 늘 경이와 흥미로움으로 하루하루가 신선놀음처럼 시간 가는 줄을 몰랐던 것이다. 함께 결정하며 수도하고 공부하는 형제들과 나누는 희망적인 대화들도 너무나 순수 그 자체였으며 '내 못처럼' 서로 나누는 마음과 마음들 그리고 밝은 구원의 얼굴들이 너무나 희망적이었으며 아름다운 신성들의 세계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이런 놀랍고 비상한 소식을 듣고도 어찌하여 그렇게들 무덤덤하게 대하는 지 그것도 나는 참으로 이상하게 여겨졌다. 세상을 또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나'와 다른 사람들의 일상에서의 타성에 젖은 삶을 재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각자 다 관심사가 다르고 과업이 다르고 죄업장이 다르다. '삶'이라는 인생의 목적을 진지하게 근본적으로 의문을 갖고 깊이 생각하며 그 의문들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없다. 무언가에 사로잡힌 채 쫓기듯이 하루 하루 바쁘고 짜증나는 고통과 고뇌의(?) 삶을 그날 그날 살아 가며 또 결국에는 자식들에게 고민과 슬픔을 안겨주며 늙음과 죽음을 향하여 살아가는 게 세상 인생들이 아니던가. 비록 돈이 많다는 부자나 재벌이나 세상 권세를 가진 권력자들 할지라도 이

보다 더 나은 존재들이 과연 있을까. **새로이 접하게 된 놀라운 지식과 이슬성신 사진, 그리고 구세주 전(全)능력**

매사 학구적인 습관으로 의문이 생기면 의문을 꼭 풀고 가려는 태도를 지녔던 나에게 제단 벽에 여럿 걸려 있었고 또 단상에서 매일 소개하는 감로 이슬성신 사진들, 이 신비한 빛이 담겨진 사진들은 정말로 나의 관심을 사로잡기에 충분하고 또 분에 넘치는 '번 당산' 같은 대상이었다. '나도 저런 사진을 찍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불사약이라니. 만약에 생명과학을 추구하는 어느 진지한 학자가 이 사실을 접한다면 아마도 그의 눈과 뇌는 불이 붙기 시작할 것이다. 그것을 내 눈 앞에서 사진으로 보고 있는데 나 같은 보통의 사람도 가까이 다가갈 수가 있는 것일까. 나는 이 구원의 역사, 저 놀랍고 신비한 '이슬성신'의 역사와 인류를 구원하여 영생하도록 살린다는 생명운동과 천지공사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인가.

그리고 우리 한민족이 성경에 기록된 단지파이며 단군 성조(할아버지)께서 아픔의 다섯째 아들 '단(DAN)'이라니!

김광령 목사

집사랍한테 북한의 배급제도를 신랄하게 비판한 후 "이렇게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자유도 없는 데서 어떻게 살겠어? 이곳을 빨리 떠남시다" 하였다. 집사랍은 "아니 당신! 여기 사람들 우리 처럼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요? 그래도 모두 다 아무 말 안하고 잘 살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당신보다 똑똑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이 머리가 있고 외국 사정도 알고 그런 사람들인데..."라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고 우리 우리랑. 남들이 다 그렇다고 해서 시도도 한번 안 해보고 포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야. 난 부아가 치밀어서 도저히 이곳에서 못 살겠단 말이야. 차라리 이렇게 살 바에는 일찍이 죽어버리는 게 낫지 이게 사람 사는 거야?"라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김만철 선생 탈북기



김만철 선생 탈북기

살았는데 김일성이 평양을 특별시로 만들다 보니까 평양에 있는 공장들 다 지방으로 이주시켰다. 장인이른은 통신기술자인데 장인이 다니는 통신공장도 그때 평양에서 평안남도 용강으로 옮겨졌고 그에 따라 처갓집도 용강 근처 후산리로 이사를 갔다. 장인은 50대에 공장에서 공구를 갈다가 그리다 돌이 뛰어서 이마에 맞았는데 뇌를 다 쳐서 돌아가셨다.

장인이 돌아가시자 장모님이 장인이 다니던 그 공장에 다녀야 배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공장에 다녔다. 북한에서는 사고로 빠진 가족 대신 충원을 하지 않으면 배급을 못 받아 굶어죽게 되어 있다. 연약한 여자의 몸으로, 그것도 나이가 적지 않은 사람이 자식을 키우라, 공장에 나가라, 온갖 가정을 다 하라, 당에서 하는 노력동원에 참여하라, 장모님이 얼마나 어렵게 살고 있는지 짐작은 되었지만 수천 리 떨어진 처갓집에서 마음뿐이지 도와줄 수도 없어서 안타까웠다.

그런데 우연찮게 처갓집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어느 해 4월에 용강에서 의학학술회의가 열리는데 그 회의에 참석하게 되었다. 집사랍에게 "처갓집에 한번 들릴 거야"라는 말도 안하고 청진을 떠났다. 청진에서 평남 용강까지는 아마 서울에서 부산가는 거리의 3배 가량 될 것

따뜻한 남쪽 나라를 찾아서

제4화 수천 리 떨어진 처갓집에서 장모님을 모시고 오다



방문을 열고 들어가니 처남들이 오물오물 떨고 있었다

이다. 처갓집이 있는 후산리는 거기서 또 몇 십 리 더 들어가야 한다. 후산리는 남포 근방에 있는 작은 시골 마을이다. 당시는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승용차로 갈 수 있는 신분도 안 되었다. 장거리를 움직이려면 천상 기차를 타고 가야 한다. 직직폭폭 연기를 내뿜고 다니는 증기기관차를 타고 한 이틀을 타고 가하면 처갓집에 도착할 수 있다. 단선 철도라 가다 서면 다른 열차가 지나갈 때까지 길이 없이 서있다. 어떤 때는 너무 지겨울 정도로 서있는 경우도 있다. 고개를 넘어갈 때는 사람

걸어가는 속도만큼 느릿느릿 간다. 껍하고 연기를 뿜어낼 때면 시커먼 검댕이 가 날아와 얼굴이 고와서 찰고 뭇는다. 청진에서 평양까지 꼬박 하루 걸렸다. 학회 참석차 가는 길인데 검댕이로 와이셔츠가 얼룩져서 부득이 평양에 있는 누님 집에 들러서 와이셔츠를 빨아 입고 갔다. 누님 집 평양에서 용강까지 가는 데 또 하루가 걸렸다. 용강에서 후산리까지는 약 이십 리 거리인데 기차도 하루에 두 번 조석으로밖에 안 다니는 촌구석이다. 어떤 때는 무슨 연유인지 모르지

라도 마음대로 갈 수 없다. 청진시 같이 큰 대도시는 더군다나 잘 받아주지 않는다. 물론 평양은 특권층만 들어갈 수 있다. 이사를 하려면 먼저 이사 가려는 곳의 군(郡) 안전부(경찰서에 허락을 받은 후 현 거주지 리위원장한테 퇴거 신청을 해야 한다.

또한 이사를 하려면 반드시 통행증이 있어야 한다. 자기가 살고 있는 곳 이외에는 통행증이 없으면 못 다닌다. 군과 군 사이 왕래할 경우에 통행증이 있어야 한다.

나는 후산리위원장을 찾아가서 "청진의 안전부원들을 잘 알고 있으니 이사 허가를 받기는 쉽다. 그러나 통행증과 퇴거증을 떼어달라"고 말했다. 리당위원은 그래도 떼어줄 수 없다고 하는 바람에 용강군 의사들을 통해서 부탁을 하였더니 통행증을 받아서 퇴거를 할 수 있었다. 그들도 늘 의사들 신세지니까 부탁을 안 들어줄 수 없었던 모양이다.

퇴거하라. 통행증 발급 받으라 용강으로 걸어서 왔다갔다 하다보니 회회 후 사흘 걸려서 청진으로 떠날 수 있었다. 그때 큰처남이 중학교 1학년이 있었다. 큰처남이 한 보따리 걸머지고, 내가 한 보따리 들고, 작은 처남은 어린애라 그냥 걸리고 용강에서 무선 쪽으로 가서 기차를 타고 이를 걸려서 청진으로 왔다. 청진에 도착하여 집고 들어가니 집사랍이 친정어머니를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였다. "우리 어머니 아니요. 세상에 이게 어떤 일이에요. 어머니가 여길다 오시다니..."

그렇게 하여 장모님과 처가식구들과 함께 좁은 우리 집에서 같이 3년을 살게 된 것이다.*

북한은 거주이전의 자유가 없다

북한에서는 이사 가고 싶은 곳이 있다